

# 군법당 - 지역사찰 연계 절실

공청회서도 찬반 팽팽... 포교원 중헌 관련 「신중」 입장

본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군순특별교구' 설치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절반이 훨씬 넘는 63.6%의 응답자들이 특별교구를 설치해 군포교 전반을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순특별교구는 94년 9월 군순단(당시 군순단장 강남석법사)이 '군순특별교구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됐다.

이때 발표된 '군순특별교구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군순특별교구는 현역 및 예비역 군법사, 장사별법사, 군법당 등을 관할하며, 군포교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교구본사의 지위를 부여받아 주지 및 중회의원을 배출한다. 재정확보는 지원사항을 지정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취지, 유발, 재정미약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군순단은 군순특별교구 설치에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군순단의 한 간부 군법사는 "군포교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순특별교구 설치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며 "교구가 될 경우 특별교구 주지는 현역군법사가 유

## 쟁점 떠오른 군순특별교구

발인 점을 감안, 예비역군법사 가운데 중진 스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아직 군순단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는 포교원만의 사안이 아니라 총무원 교육원까지 연계된 종단전체의 사안이며, 종헌종법의 개정 등 과도 맞물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순단 발전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 좋다고 밝혔다.

군순특별교구 추진 공청회 때 특별교구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던 보광스님(종교대 교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보광스님은 "군순의 위상은 철저한 수행과 군순본연의 자세가 바르게 확립되었을 때 스스로 격상될 것"이라며 "군순단의 화합과 교육, 자질 향상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많은 중도들이 다시 군순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순단내외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 영관급 군법사는 군순특별교구보다는 종단 연합의 군순단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 군법사는 "군순사관선발학교로 위역대 포함여부가 논의되고 있고, 만약 위역대도 군순선발학교로 지정된다면 조계종단만의 군순단이 아닌 종단연합의 군순단으로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재정문제도 해소되고,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군순법사들이 군포교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 창간 3주년

## 군법사 92명(현역 52·예비역 40) 응답

군포교는 '황금어장'이란 말에 걸맞게 한국불교의 대중불교 거사불교 생활불교의 터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계장병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2년 18만7천여명, 96년 15만7천여명) 이에 본지는 군법사 설문을 통해 군포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설문은 현역군법사 117명, 예비역군법사 120명에게 우편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92명(현역 52, 예비역 40)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한 설문은 중앙승가대 전산실에 의뢰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해 분석했다. <편집자 주>

군포교를 직접 담당하는 군법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과 재정난, 교계의 무관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는 확인해주고 있다. 이리다가는 타종교의 강화된 군선교전력에 밀려 포교의 황금어장이 빛을 잃는 개살구적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법사 1인에 법당 15곳

과중한 업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법사의 절대 부족이다. 현재 군법사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만 배치되어 있다. 사단 법사가 관할하는 예하부대 법당은 많을 경우 10~15곳에 이른다. 대대급 이하 법당은 군법사의 발길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어려워 군

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승가대의 군순사관선발학교 지정에 이어 진각종립 위덕대학의 선발학교 지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19.3%),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야 한다(42.0%)고 밝힌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61.3%)을 보였다. 현재와 같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한정해야 한다(17.0%)거나 의식이 다르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18.3%)는 이유로 반대한 응답자는 35.2%로 찬성이 반대보다 26%포인트나 높았다.

조계종단 소속이면서도 타종단 군법사 배출을 반대하고 있는 조계종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종단간 경쟁관계를 형성해 군법사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군포교에 특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용을 개인부담(33.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또는 장병) 보시금은 40.5%, 후원금 23.0%였다. 타종교의 집회 모습 가운데 부러웠던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다수 군법사(71.6%)들이 지역 종교단체의 후원을 들어 불교와 타종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법회비용 군순부담 33%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군법사들은 보고 있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몇몇 사찰에 한정돼 있다(60.2%)거나 관심이 낮은 편(19.3%), 원력만 있을 뿐(9.1%)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인식은 높은 편이라는 응답

## 군불자 감소원인 '예산·법사부족' 재정빈약 부정기 지원의존 69.3%

중병 관리하에 놓여 있다. 군중병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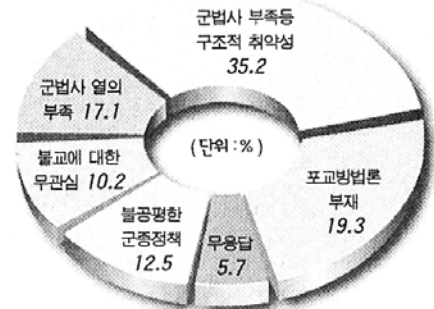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군법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찰과의 협조체제 구축(45.5%)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예비역법사의 활용(23.9%), 재가법사의 활용(15.8%) 순이었다. 전역불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도 군법당-사찰간의 연계(69.3%)를 첫째 방법으로 여겨 군법당-사찰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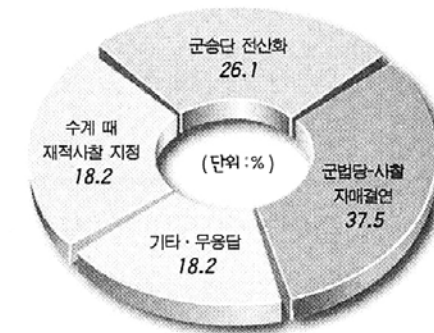
군포교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관련, 거의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다. 신도(또는 장병)들의 보시금(27.4%)과 개인연고자 있는 스님이나 단체, 친지로부터(25.3%) 총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사찰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사찰이나 단체의 지원은 각각 14.1%, 5.1%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정기적인 지원보다(25.0%) 부정기 지원(69.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군법사들은 법회비

은 9.1%에 불과했다.

군법사들은 군포교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군순특별교구 및 군포교특별기금 설치를 제시했다. 군순특별교구 설치에 대한 물음에 63.6%의 응답자들이 특별교구를 설치해 군포교 전반을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행·포교 등 군법사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특별교구보다 군순단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8.3%, 10.2%로 나타났다. 취지 유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4.5%였다.



◇군불자 감소원인



◇전역불자 관리방안

그러나 군포교특별기금 설치와 관련, 현재의 군순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3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특별교구 설치와 군순단 강화론이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위덕대 군순선발 61%

군법사들은 군내 포교활동을 하며 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과 군법사라는 이중의 신분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나(가끔 경험 46.6%, 자주 경험 27.3%), 지휘자가 특정종교를 강요하면 불복하거나(60.2%)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설득하겠다(35.2%)고 답해 강한 호법의지를 보였다. 군의 '1인 1종교 갖기 운동'에 따

른 특정종교 강요사례를 직접(45.5%) 또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나(47.7%), 이 운동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폐단(46.6%)보다는 운용상의 문제(46.6%) 또는 부작용이 있으나 바람직하다(6.8%)고 답했다. 이는 군내에서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 없으면 사병들의 종교집속 기회가 대폭 없어져 결국 불교는 물론 다른 종교의 포교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중제도 가운데 1인 1종교 갖기 운동의 획일적 추진 및 종교별 신자수를 고려치 않은 군중제도의 운용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군불자 감소(92년 18만7천여명, 96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 해외성지순례의 명문

- 인도·네팔·태국, 스리랑카
- 티벳·실크로드·중국
- 파키스탄·미얀마·대만
- 인도네시아·몽고·캄보디아
- 라오스·베트남·부탄



(051) 462-1231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9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본부장 박원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91-9 전화 : 062)653-0048

### 광주불교 산악회

회장 이재삼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587-20  
전화 : 062)676-4337

### 광주광역시 불교사암연합신도회

회장 이연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부각사 內)  
전화 : 062)376-3225

###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 혜광 대중 일동

주소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전화 : 0433)43-3615  
FAX : 0433)43-3620

###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사

조실 선산 주지 성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신도회일동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주소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1-1  
전화 : 032)934-8484 032)933-8834 032)933-8236

###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

주지 현지 사부대중 일동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 062)266-0326

### 한국불교원각종 호남총무원장

강진음천사 주지 석정암 덕은불교대학

주소 : 전남 강진군 음천면 391  
전화 : 0638)33-2233

### 대한불교조계종 직역사찰 관음성지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전화 : 032)933-8271~3  
FAX : 032)933-8270

###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연포교원 금강불교대학

주지 일지 신도회 거사림회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42-69  
전화 : 032)523-9911  
FAX : 032)511-6194